

‘에이전트 엔’ 전면 도입… 검색부터 제조까지 AX 가속화

팀네이버 ‘단25’

내년 쇼핑·검색에 에이전트 접목
‘에이전트 엔 포 비즈니스’ 공개 예정
사업자 솔루션·데이터 하나로 통합
크리에이터 AI·XR 활용 지원도
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 확대

네이버가 주요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제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을 높이는 등 일반 서비스부터 기업 간 거래(B2B)까지 아우르는 AI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팀네이버의 통합 컨퍼런스 ‘단25(DAN25)’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 온-서비스 AI로 서비스 성장·신규 시장 창출

이날 행사 키노트 세션의 오프닝을 맡은 최수연 대표는 “지난 1년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6일 열린 단25 컨퍼런스에서 ‘에이전트 엔’을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며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내년 1분기에 AI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쇼핑 에이전트를 접목하고, 2분기에는 통합검색이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AI탐’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대표는 “사용자는 어떤 검색어를 입력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며 “‘에이

전트 엔(Agent N)’과의 대화만으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상품·서비스로 연결하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전트 엔은 ‘온-서비스 AI’를 통해 축적된 버티컬 AI 역량을 고도화한 기술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제안하며 실행까지 완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다양한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는 네이버만의 장점을 살려, 쇼핑 에이전트에 실제 구매자와 예약자만 남길 수 있는 리뷰, 판매자와 직접 연결된 재고 데이터 등 신뢰도 높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를 분석하는 기술적 검증 체계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 크리에이터·비즈니스 파트너 위한 기술 생태계 확장

창작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AI 에이전트 생태계도 열린다. 네이버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즈니스 통합 에이전트 ‘에이전트 엔 포 비즈니스(Agent N for Business)’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종민 광고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비즈니스 에이전트는 쇼핑·광고·플레이스 등 모든 사업자들을 위한 AI 솔루션”이라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업자 솔루션과 데이터를 하나의 비즈니스 허브로 통합, 사업자가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현황을 손쉽게 진단해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창작자들이 AI·XR(확장 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 실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후 네이버앱 서비스 부문장은 “AI

와 XR 기술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는 초몰입·초실감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게임, 음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AI 생태계 투자 공격적 확대…제조 산업 중심 AX 협력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목표로 AI 생태계 경쟁력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의 GPU(그래픽처리장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제2사옥 1784와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도 곧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최수연 대표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 제조 핵심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 위에 네이버가 갖춘 독보적인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풀스택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메리츠화재, 금융 AI모델 개발 추진

‘AI 기반 미래 금융 혁신’ 공동연구 금융·보험 분야 활용 성과 창출 청구 서류 자동인식 등 고도화

KT는 메리츠화재와 6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AI 기반 미래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적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KT의 인공지능(AI) 기술과 메리츠화재의 금융·보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금융 서비스 혁신 모델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두 회사는 보험 및 금융 분야에 연계 가능한 AI 모델 개발과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기술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KT는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경험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

과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의 보험 관련 데이터와 KT의 AI 모델 제작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공동으로 AI 금융 모델을 활용하며 ▲보험 특화 AI 모델 개발 ▲AI 기반 보상 자동심사를 위한 청구 및 의료 서류 인식 기술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생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한다.

KT는 연구에 필요한 GPU 인프라와 AI 모델을 제공하고, 한국어 인식 성능이 높은 ‘밀:음 K 2.0’ 등을 활용한다. 금융권 망분리 환경에서의 법률 특화 AI 모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보험 분야 맞춤형 AI 모델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 OCR(광학문자인식) 솔루션 ‘다큐씨(DocuSee)’를 적용해 의료 및 보험 서류 인식 성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청구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리츠화재는 정형·비정형 금융 데이터를 제공해 AI 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데이터 보호 및 보안체계를 고려한 AI 기반 보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특화 AI 모델과 의료 서류 인식 기술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보험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직장인 AI 활용 역량강화 지원

‘AI 미래 토크’ 열어

LG유플러스는 직장인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미래 토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 30~40대 직장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최신 AI 트렌드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LG유플러스의

AI 구독 서비스 ‘유독픽AI’에 참여하는 국내의 제휴사 10곳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퇴근 후 만나는 AI 레벨업 찬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메인 강연자로는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 대표가 참여해 AI 시대의 인재상과 필요한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김승일 과실연 AI미래포럼 대표의장과 류정혜 공동의장이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변화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AI 실무 적용 방안을 직접 논의했다.

/김서현 기자

SK AX-씨에스윈드, 제조공정 최적화 ‘웨이브 플랫폼’ 구축

씨에스윈드, 전 사 AX 추진 전 세계 7개 법인 확대 계획

SK AX가 글로벌 풍력 타워 제조 기업 씨에스윈드와 함께 전사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 제조 산업 미래를 이끌 AI 중심 운영 모델 구현에 나선다.

SK AX는 씨에스윈드의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웨이브(WAV)’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씨에스윈드는 미국·베트남·덴마크·포르투갈 등 7개 국가에서 생산 법인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해상·육상 풍력 발전 구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씨에스윈

드는 AI 중심 조직 운영과 프로세스 혁신을 목표로 전사 AX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SK AX는 지난 8월 씨에스윈드 미국 공장에서 AI 에이전트 도입 타당성 검증을 시행했다.

이번 웨이브 플랫폼 구축 사업은 타당성 검증 결과를 씨에스윈드 산하 미국과 포르투갈 법인에 도입해, AI 기반 생산 공정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해당 플랫폼을 향후 전 세계 7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 플랫폼은 ERP(기업자원관리), MES(생산관리) 등 주요 기간 시스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계해 실시간 조회와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

가·사업장별 핵심 지표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SK AX는 AX 플랫폼을 기반으로 씨에스윈드의 생산 현장과 사무 영역 전반에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에이전트 AI 체계도 구현한다. 미국 법인에 적용한 디지털 현황판과 AI 작업 지시 에이전트를 비롯해 ▲고객 도면을 자동 분석해 생산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에이전트 ▲자재·설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 일정을 생성하는 스케줄링 에이전트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돕는 현장 관리 지원 에이전트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도입한다.

/김현정 기자

신작 ‘프로젝트 옥토퍼스’ 판권 확보

넷마블은 글로벌 게임 개발사 콩스튜디오와 신작 게임 ‘프로젝트 옥토퍼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가디언 테일즈’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이 게임은 내년에 출시되는 신규 작품으로, 도트 그래픽 기반의 캐주얼 액션 로그라이크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번 계약으로 넷마블은 프로젝트 옥토퍼스의 국내·외 서비스 판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그간 축적한 퍼블리싱 노하우를 기반으로 폭넓은 마케팅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콩스튜디오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새 IP를 선보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넷마블의 퍼블리싱 노하우와 콩스튜디오



김병규 넷마블 대표(왼쪽)와 석광원 콩스튜디오 대표가 ‘프로젝트 옥토퍼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넷마블

오의 독창적인 개발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완성도 높은 재미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광원 콩스튜디오 대표는 “넷마블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 프로젝트 옥토퍼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